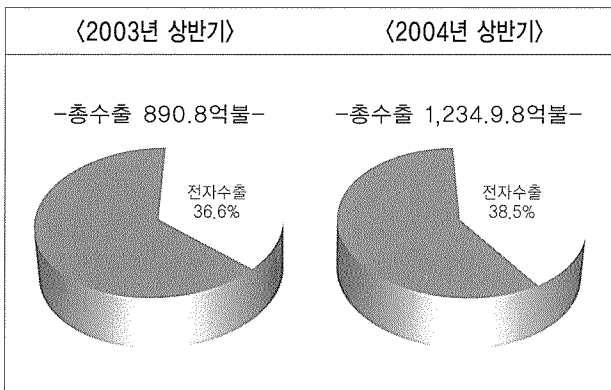


전자산업 수출입구조 변화

전자산업연구소

수출기여도 제고



상반기 총수출입 실적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8.6% 증가한 1,234억9천만불, 수입은 25.7% 증가한 1,079억8천만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5억1천만불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데다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일본도 경제가 크게 나아지는 등 선진국의 경기가 크게 호전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긴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다.

이러한 총수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높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수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작년 1분기의 수출증가율은 20.7%이며,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69.9%였고, 이후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즉, 2분기의 수출증가율은 14.4%이나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24.9%로 급상승하였고, 3분기와 4분기의 수출증가율은 15.9%, 25.6%이며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17.7%, 104.7%에 이르렀고, 금년들어 1분기의 수출증가율은 37.7%이고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04.9%에 달하였다.

상반기 전자산업수출입 기여도

금년 상반기 전자산업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5% 증가한 475억5천만불, 수입은 23.1% 증가한 254억2천만불을 기록했다. 전자산업의 무역수지는 221억3천만불에 달성했으며 전자산업의 수출은 타산업의 수출보다 왕성한 활동을 보이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수출 증가율이 38.6%인데 비해 전자산업의 수출은 45.5%로 6.9%p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전자산업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전년 동기의 36.6%보다 1.9%p 상승하였고, 또한 총무역수지는 155억1천만불이나 전자산업의 무역수지는 221억3천만불로 한분야의 수치 규모가 전분야의 수치 규모보다 더 큰 편이다.

대미 수출증가율 평균 하회

상반기 중 전통적으로 1위의 수출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저하된 반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상승하였다.

〈2004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

〈2004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 (단위: %)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중남미	아프리카
41.2	67.2	86.6	73.8	52.8	77.3

전자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 45.5%를 기준으로 볼 때, 먼저, 대륙별에서 아시아가 46.2%, 유럽이 54.7%, 중남미가 52.8%, 아프리카가 77.3%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북미가 39.2%, 대양주가 36.4%로 평균보다 낮았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41.2%로 평균을 하회하였고, 미국은 수출규모면에서 아직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을 감안하면 조만간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에는 중국산, 동남아시아산 전자기기들이 강력하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으며, 저가시장에는 한국산이 발자취를 감추었으며, 중급시장에서도 경쟁이 격화되고 다국적 선두 메이커들이 생산원가가 저렴한 지역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미국시장에 대량 풀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의 경우 일부 새로운 디지털전자기기들은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일부 전자기기들은 퇴조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시장에서 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시장에 가까운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니즈에도 부합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2위의 전자산업 수출대국으로 등장된 중국은 67.2%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대중 전자산업수출증가율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의 교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간 유리한 요인이 작용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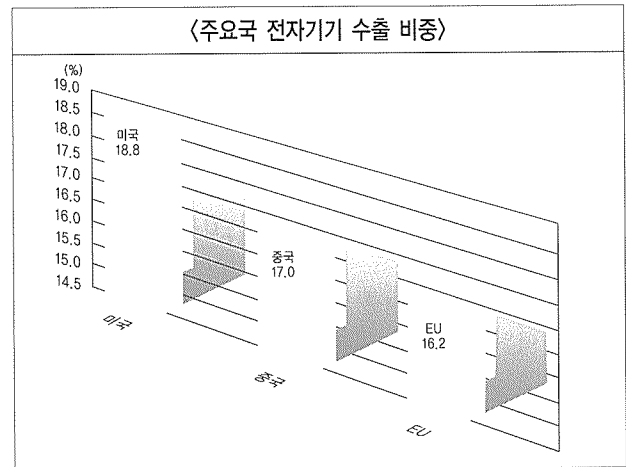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각국이 앞다투어 행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간주하였지만, 이제 소비시장으로 확산되고 있고, 고도경제성장과 소득의 향상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2억 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있고 국내 메이커들은 공장부지비용, 물류비용, 인건비 등 각종 생산원가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현지공장에 소요되는 원재료나 반제품 등을 중국에 반출하고, 그 곳에서 일부 가공하거나 완성된 전자기기들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기도 한다.

유럽지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의 수출증가율은 86.6%, 73.8%로 매우 높은 편이며 EU로 통합된 이후 유럽의 중심지인 독일의 지리적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국내 메이커들이 유럽방식인 GSM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EU는 친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성을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EU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EU가 설정한 높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산 전자기기들은 에너지효율성 기준에 적절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중남미에 대한 전자기기의 수출증가율은 52.8%이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77.3%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시장개척의 성격이 짙지만, 국산 전자기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내 메이커들은 이 지역에서 특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축구에 열광하는 중남미

에서는 사커챔피언쉽에 스폰서로 등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밀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형 디지털TV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산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 중국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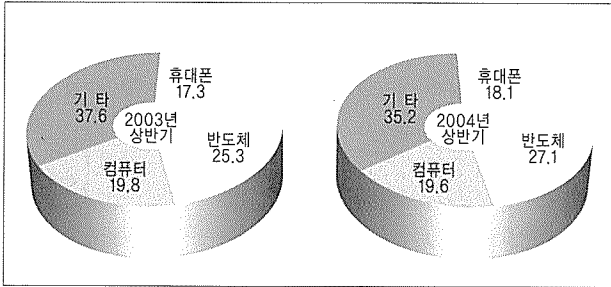
상반기 중 수출증가율 뿐만 아니라 수출의 비중도 중국과 EU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전자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산업의 비중은 17.0%로 전년 동기의 14.8%보다 2.2%p 올라갔으며, EU의 비중도 16.2%로 전년 동기의 15.9%보다 0.3%p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비중은 금년 상반기에 18.8%로 전년 동기의 19.4%에서 0.6%p 떨어졌다.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인 규모가 점차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국내 메이커들이 중국과의 빈번한 접촉이나 본사,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욕 등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 높은 3대 IT품목 의존도

금년 상반기 전자기기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 반도체, 컴퓨터 등 3대 IT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3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작년 상반기의 62.4%에서 금년 상반기에 64.8%로 상승하고 있음. 휴대폰전화기가 17.3%에서 18.1%로, 반도체가 25.3%에서 27.1%로 각각 상승하였고, 반면 컴퓨터는 19.8%에서 19.6%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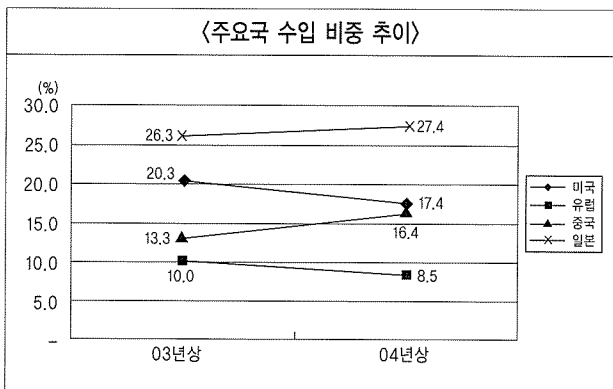


3대 품목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특정 품목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세 품목의 세계시장이 급변하게 된다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신기술과 신제품에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이론도 나오고 있다.

▶ 아시아의 수입비중은 상승하고 구미는 하락

금년 상반기 전자산업의 수입 비중에 있어서도 미국, 유럽 등 구미지역은 하락하고 있으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은 상승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은 작년 상반기의 20.3%에서 금년 상반기 17.4%로, 유럽지역은 10.0%에서 8.5%로 각각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수입 비중은 13.3%에서 16.4%로, 일본은 26.3%에서 27.4%로 각각 상승하였다.

종전까지 기술, 품질의 선진권이던 미국, 유럽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이 상당히 단기간에 범용화되고 있으며, 또한 첨단기계에 신기술이 거의 그대로 접목되고 있는 데다, 아시아지역으로 선진국들이 기술, 자본을 대거 이전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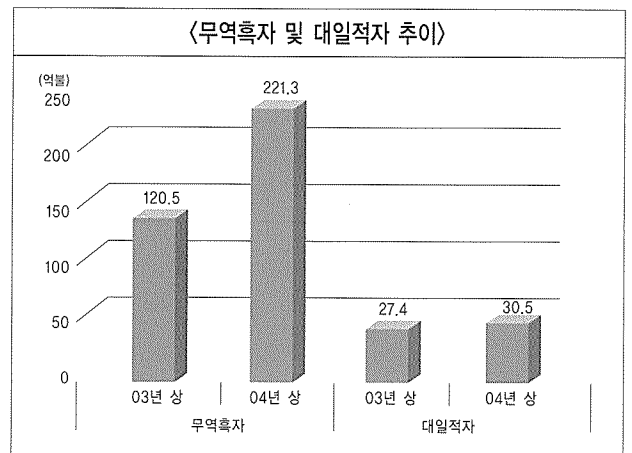
시아가 부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경제가 성장하고, 근면한 노동력도 확보되는 지역에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고, 기업 마인드가 로컬에서 글로벌화 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 대일적자 高, 무역흑자 高

금년 상반기 전자산업의 대일적자와 무역흑자가 공히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며, 특히 대일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전자산업의 대일적자는 작년 상반기의 27억4천만불에서 금년 상반기에 30억5천만불로 11.6% 증가하였다.



종전과 같은 수출급증 → 대일 수입급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지만, 상관관계는 상당히 낮아지고 금년 상반기 전자산업의 수출은 45.5% 급증하였으나 대일 수입은 11.6% 증가하였다.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신기술의 개발에 있어 일본과 대등하거나 근접할 정도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첨단 기술은 국산이 앞서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핵심 원천기술은 일본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 대일 의존도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산업의 금년 상반기 수출이 475억5천만불, 수입이 254억2천만불로 수출이 수입을 크게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작년 상반기의 120억5천만불에서 금년 상반기에 221억3천만불로 83.6% 급증하였고 상반기 우리나라의 총 무역흑자가 155억1천만불임에 비해 전자산업의 무역흑자가 221억3천만불임을 감안하면 단일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외화 가득이나 무역수지의 흑자기조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